

Women Power Dressing Expressed in Recent Fashion

- With reference to the female yuppie style of the 80s -

Choi, Ho-Jeong* · Ha, Ji-Soo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ociety expresses more interests in strong and independent women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women with economic power are increasing. This is because demands for delicacy and objective judgment known to be unique qualities of women are now on the rise in many professional sectors. The shift in public awareness of the female image and capability is also being manifested recently by a new fashion style named "New Women Power Dressing".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uniqueness of women power dressing by comparing the new power dressing style with the female yuppie fashion of the 80s known to have marked the beginning of female power dressing. A reanalysis of the present fashion style in reference to its predecessors will lead to a prediction on new fashion trends for the future.

Several reference documents and publications along with various papers on relevant subjects at home and abroad were studied and pictorial materials released by US Vogue from 1980 to 1989 and Collection in 2000s were analyzed.

Research showed that both the female yuppie style of the 80s and the new power dressing trend of the 2000s stress manliness and showoff. Such characteristics were expressed in fitness and fashion style. However, the two look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internal significance and external shapes.

Yuppies, who were the talk of the 80s, were young professionals aged between the late 20s to

the mid 30s, making more than USD 40,000 a year and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r around New York. Their look was modern, intelligent and tailored, and called Power Dressing or Dress for Success. Women borrowed the male business suit style, added shoulder pads to display authority and covered their breasts with a jacket to eliminate their feminine sexuality. An image of women as strong as men was also expressed by building muscles for a healthy physique. Yet, femininity was secretly enjoyed by wearing gorgeous sexy underwear underneath power suits. Female yuppies of the 80s expressed their social and economic power with luxury designer brands and expensive clothes. Brands like Calvin Klein, Ralph Lauren or Giorgio Arman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ower dressing.

The woman power dressing of the 21st century is a new expression exposing femininity which was hidden in the 80s. The new power dressing emphasizes femininity through softened shoulder lines, and lighter and softer materials. The male-like muscular body is rejected and now women focus on exercises to build a feminine body and serene mind. That is why recent designs reflecting the sports trend focus on a well-coordinated mix of feminine and sporty looks to suggest a modernized female power style. Preference for luxury items is also a part of new power dressing, but, blind designer brand loyalty is no longer a norm. Instead, the luxury style is manifested in a much more diversified and disciplined manner.

현대 우먼 파워로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 80년대 여성 여피의 패션 스타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호정* ·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지식정보시대인 21세기에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경제력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세기동안 강한 남성의 힘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의 섬세함과 객관적인 판단력에 대한 요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분야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이미지와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변화는 최근 패션에서 우먼 파워를 나타내는 뉴 파워 드레싱(new power dressing)이라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다시 부각되는 파워 드레싱에 주목하여 여성 파워 드레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80년대 여성 여피(Yuppie)족의 패션 스타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우먼 파워 스타일의 특수성을 정의 내리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 유행 스타일을 역사에 근거해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패션과 유행 스타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그리고 논문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1980년에서 1989년까지의 미국 보그(vogue)지, 2000년대 컬렉션(collection)지에 나타난 시각자료의 사례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먼 파워 패션 스타일이 표출하는 내적 특성은 80년대 여성 여피의 스타일과 2000년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 모두에서 크게 남성성과 과시성으로 분류 정의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몸 가꾸기를 통해 그리고 의복 스타일을 통해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여성 여피 스타일과 2000년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에서 근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적 의미와 외적 조형성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1980년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여피족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며, 4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20대 후반

에서 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이들의 패션스타일은 현대적이며 지적인 테일러드 룩으로 Power Dressing 혹은 Dress for Success로 불려졌다. 남성의 비즈니스 슈트를 그대로 차용한 스타일에서 이들은 어깨의 패드로 권위를 상징했고 가슴을 덮는 재킷으로 성적 특성(sexuality)을 제거하며 남성성을 가시화하였다. 의복을 통해서만이 아닌 건강한 근육질의 몸매를 통해 남성과 같은 힘을 갖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하였다. 그리고 화려하고 섹시한 속옷을 파워 슈트 안에 입어 여성성(femininity)을 철저하게 은폐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즐기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중적인 특성을 갖는다. 80년대 여성 여피들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인 힘을 의복에서 디자이너 로고나 가격을 통해 표현했다. 파워 드레싱을 연출함에 있어서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렌,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21세기 새로이 나타나는 우먼 파워 드레싱의 경우 80년대 파워 드레싱에서 은폐되었던 여성성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새롭게 표현된다. 역삼각형의 각진 어깨선이 부드러워지고, 소재가 매우 가벼워지고 소프트해지면서 뉴 파워 드레싱은 여성성을 강조한다. 힘이 있는 여성의 몸체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되어 남성적인 근육질의 몸을 거부하며, 여성적인 몸매, 맑은 정신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운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러므로 최근 스포츠 트렌드가 반영된 디자인은 여성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의 믹스로,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모던하게 변형된 새로운 우먼 파워 스타일을 제안한다. 과시성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브랜드 신봉을 통한 파워의 과시가 아닌 고가품을 선호하지만,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은폐된 방향으로의 과시가 나타난다.